

아가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reaching from the Song of Songs

김창훈 (총신대학교/설교학)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가서의 이해와 설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아가서 설교를 위한 하나의 제안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필자는 아가서 장르와 관련하여 ‘줄거리가 있는 시로 표현된 진정한 사랑을 교훈하는 지혜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아가서 해석의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의미를 부여하는 풍유적 접근은 지양해야 하지만, 모형론과 문자적 접근은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가서 설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발전적 구조가 설교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인(또는 부부)의 관점과 신앙생활의 관점이 발전적으로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가서 설교, 아가서 주제, 아가서 장르, 아가서 해석, 아가서 구조

* 논문 접수일: 2010. 5. 28. 수정 접수일: 2010. 7. 2. 게재 확정일: 2010. 9. 11.

1. 들어가는 말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아가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해석학적 논란이 가장 많은 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해석학적 논란은 최근에 더욱 심화되었는데 특별히 아가서 설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장르와 전체의 구조(Structure) 그리고 해석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아가서를 설교하기 원하는 설교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왔다. 또한 아가서는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¹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詩)로서 표현되었기에 은유와 상징이 많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등장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대화와 노래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많은 지명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아가서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시로 표현된 내용의 분명한 이해와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² 뿐만 아니라 아가서는 내용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 가운데서 독특한 부분이 많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가서 8:6에 간접적으로 1회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구원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으며, 남녀 간의 사랑만이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고백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

¹ Luis Alonso Schökel은 그의 아가서 해설 서문에서 아가서 이해의 쉽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El Cantar des Los Cantares: La dignidad del amor*, 방효익 역, 『사랑의 노래: 아가서 해설』 [서울: 바오로딸, 1998], 5).

아가서는 경탄할 만한 책이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된 이 책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니다. 대부분의 구절들이 매우 관념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발하고 독특한 말들이 넘치며, 암시적이며 생략적인 표현들이 넘실거린다. 거기다가 마침표도 없이, 제목도 나뉘고 없이 쓰는 방법이 첨가되었다.

² 예를 들어, 아가서 4:6에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물약 산과 유향의 작으로 산으로 가리라”라고 신부가 신랑에게 화답하는데, 아가서 전체와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그 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데 소극적인 문화권에서 장년들을 대상으로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이 쑥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가서는 설교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 아가서도 역사서나 복음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가서는 다른 어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가서만이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내용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자극한다. 성도들이 아가서를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이해하여 그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도록 설교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 성도들에 대한 설교자의 의무요 예의다.

그러나 단순히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다. 해석학적 근거 없이 설교자가 임의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무작정 문자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아가서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다양한 설교가 등장하여 아가서 설교의 혼란과 어려움이 점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아가서를 바르고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가서의 장르, 아가서 해석의 기본 방향 그리고 아가서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아가서의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아가서 설교를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아가서의 장르

아가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가서의 장르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장르에 대한 이해는 아가서

의 해석과 설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르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아가서를 플롯을 가진 일종의 드라마라고 보는 견해이다.³ 여기에도 두 가지 주장이 있다. 그것은 주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냐 아니면 세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등장인물을 두 사람으로 보는 견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 등장인물로서, 두 사람의 최초의 만남에서부터 결혼하고 결혼 후 갈등하는 단계를 거쳐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줄거리라고 한다.⁴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견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함께 시골의 평범한 목동을 주 등장인물로 추가한다. 이 견해는 술람미 여인의 진정 사랑의 대상은 솔로몬이 아니라 목동인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여자로서 삼기 위해서 유혹하고 납치 했으나, 그녀의 목동을 향한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결코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줄거리라고 한다(참고 아 3:6-11, 8:10-12).⁵ 그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아가서의 메시지는 진실하고 순수하며 신실한 사랑의 승리라고 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은 솔로몬의 사랑의 편력이나(왕상 11:1-13),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사랑을 사교파는 사람으로 묘사된 것(아 8:11-12)으로 보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고한 사랑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⁶

³ 참고 Tremper Longman, III, *Song of Songs* (Grand Rapids: Eerdmans, 2001), 39-43.

⁴ 이 견해의 대표적인 사람은 Franz Delitzsch와 Michael D. Goulder이다. Franz Delitzsch,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lomon*, tr. M. G. Easton (Grand Rapids: Eerdmans, 1975), 1-12; Michael D. Goulder, *The Song of Fourteen Songs* (Sheffield: JSOT, 1986).

⁵ 이 견해는 목자를 가상의 인물로 등장시키기 때문에 ‘목자적 가설(The Shepherd Hypothesis)’이라고도 한다(참고 Tom Gledhill, *The Message of Song of Songs* (Downers Grove: IVP, 1994), 24).

⁶ 대표적으로 Andrew E. Hill & John H. Walton, *The Survey of the Old Testament*, 유선명·정종성 역, 『구약개론』 (서울: 은성, 1993); Iain W. Provan,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Ecclesiastes and Song of Songs* (Grand Rapids: Zondervan, 2001) 등이 있다. Hill과 Walton은 다음과 같이 아가서가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387-8).

제목(1:1)

솔로몬의 후궁인 술람미 여인(1:2-3:5)

술람미 여인을 유혹하는 솔로몬(3:6-7:9)

솔로몬을 거절하는 술람미 여인(7:10-8:4)

술람미 여인과 목동 연인이 다시 만남(8:5-14).

그러나 이러한 류의 드라마는 고대 근동의 문헌들 속에 발견되어지지 않고, 아가서에서 등장인물과 플롯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각 인물들 간의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아가서를 단순히 희곡(戯曲)의 장르로 간주하는 견해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⁷

다음으로, 아가서를 플롯을 가진 드라마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제에 따라 묶어진 ‘사랑에 대한 서정시들의 모음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⁸ 이것을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가서의 내적인 증거들의 분석과 당시 주변 나라의 사랑의 시들 간의 유사성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⁹

세 번째로, 아가서를 지혜 문학으로 보는 견해이다.¹⁰ Brevard S. Childs는 표제가 솔로몬이라고 한 것은 아가서가 지혜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¹¹ “아가서는 결혼 제도 안에서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즐겁고 신비로운 사랑에 대한 지혜의 성찰이다”고 하였다.¹² 같은 관점에서 Gordon D. Fee와 Douglas Stuart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¹³

⁷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김갑중 역, 『구약정경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547; Longman, *Song of Songs*, 42-43.

⁸ 이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로 Tremper Longman과 Maria Falk (*Love Lyrics in the Bible* (Sheffield: Almond, 1982)) 그리고 Duane A. Garrett(*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Nashville: Broadman, 1993)) 등이 있다.

⁹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랑 시의 실제적인 예와 그 시들의 아가서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Longman, *Song of Songs*, 49-54를 참고하라.

¹⁰ 이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는 Brevard S. Childs(*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544-54)와 Gordon D. Fee & Douglas Stuart이다(*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영광만 역,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3), 366-73).

¹¹ 전통적으로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인 것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들어 아가서의 솔로몬의 저작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표제로 되어 있는 솔로몬의 이름 앞의 전치사 ‘의’를 이해하는데 다른 의견들이 제시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솔로몬의 아가’라기 보다는 ‘솔로몬에 대한 아가’ 또는 ‘솔로몬에게 헌정 된 아가’라고 하여서 아가서가 솔로몬의 저작이 아니라 단순히 솔로몬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다(참고 Longman, *Song of Songs*, 2-7). 하지만 아가서를 솔로몬의 저작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현창학, “아가서 해석”, 『신학정론』 26/2 (2008): 92-96. Gleason L. Archer,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김정우 역, 『구약총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560-63을 참고하라.

¹²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550.

¹³ Fee an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366-67.

아가는 고대 근동의 서정시의 문체로 기록된 인간의 로맨스를 다룬 넓은 의미의 발라드이다. 이 아가서를 서정적인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지혜의 범주에 속할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시 여덟 장을 성경에 넣으셨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아가에서 주로 관심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두 문제, 즉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선택이기 때문이며 두 핵심적인 선택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아가서의 장르는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가서는 형식적으로 서정시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¹⁴ 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가서가 특별한 구성이 없는 단순한 사랑 시들의 모음집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마치 시편도 막연히 구성된 시들의 모음이 아니라 정경화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구조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가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적 구조가 있으며 플롯(Plot)도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성에서 아가서는 율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의 장르에 속한 것으로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지혜 또는 방향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요약하면, 아가서는 길지는 않지만 복합적인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아가서와 같이 복합적인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구약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복합적인 장르는 아가서의 다양한 해

14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가서는 ‘쉬르 하쉬람’(שיר השירים)이라고 불리워진다. 이 말은 ‘노래들 중의 노래’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아가(雅歌-아담할 아, 노래 가)서라고 하였는데 이 말도 역시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15 아가서의 전체 구조와 플롯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16 구약 각 권의 책을 하나님을 주어로 주제를 부여하였던 Paul R. House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8], 463)는 율기는 ‘모든 상황에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잠언은 ‘지혜를 계시하신 하나님,’ 전도서는 ‘의미 있는 생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이 각 책의 주제라고 하면서 아가서의 주제는 ‘남여의 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석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아가서를 위에서 제시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즐거리가 있는 시로 표현된 진정한 사랑을 교훈하는 지혜서**’라고 정의한다.

3. 아가서의 해석¹⁷

아가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것은 아가서 해석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다. 아가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가서 설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가서 해석의 논쟁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3.1. 풍유적 해석(또는 영해: Allegory)

풍유적 해석은 해석자 또는 설교자가 정당한 해석학적 또는 성경적 근거 없이 본문에 임의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다.¹⁸ 풍유적 해석의 핵심은 아가서에 기록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인간적인 사랑은 철저히 배제하고 아가서를 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사랑받는 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풍유적인 접근 방식이 그대로 답습되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풍유적 접근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

¹⁷ 아가서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기본적인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Marvin H. Pope, *Song of Songs* (Garden City: Doubleday, 1977), 89-229; Roland E. Murphy, *The Song of Song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Canticles or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1990), 11-40; Tremper Longman III, *Song of Songs*, 20-47을 참고하라.

¹⁸ 구약을 설교함에 있어서 풍유적 접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70-90을 참고하라.

아가 아가서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성도 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임의로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두 유방을 ‘신약과 구약’으로, 포도주를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입술의 입맞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의 젖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검은 피부를 ‘교회의 죄악’ 등으로 해석한다.¹⁹ 그러나 아가서뿐 아니라 전체 구약 해석에 있어서 풍유적 접근은 객관성과 해석학적 근거가 결여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3.2. 모형론(Typology)

모형론은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혹은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예시 또는 예언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아가서 해석에 있어서 풍유적 접근과 모형론적 접근은 많은 부분이 겹친다. 하지만 모형론적 접근이 풍유적 접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율법의 성막이나 제사 제도를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다시 말해, 개괄적으로 성막이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근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마태복음 12:42에서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사랑의 비밀을 이 아가서에서 미리 볼 수 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한 부분이 많다. 호세아서나 에베소서 5장이 그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아가서를 모형

¹⁹ 참고 Marvin H. Pope, *Song of Songs*, 89; Duane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354; Longman, *Song of Songs*, 25.

론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3.3. 문자적(또는 자연적) 접근

문자적 접근은 일차적으로 아가서를 알레고리나 모형이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자적 해석방법을 지지하는 자들은 아가서는 우선적으로 시로서 표현된 예술 작품인 것을 인정하며, 아가서를 순수한 사랑과 결혼 그리고 결혼 안에서 성적(性的)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로 본다.²⁰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을 통한 이성적(異性的)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되어진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훈한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제적으로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의 사랑과 결혼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고, 상호 간에 육적인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사랑이 음란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솔직히 언급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순결과 품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최근 들어 아가서의 바람직한 접근 방식으로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3.4. 필자의 견해

필자는 위의 세 가지 대표적인 접근 방식 가운데 적당한 해석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의미를 부여하는 풍유적 접근은 지양해야 하지만, 모형론과 문자적 접근은 함께 취하여 아가서의 해석과 설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형론이나 문자적 접근 가운데 한쪽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가서의 원래 의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할

²⁰ Edward J. Young은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정경에 배치하였음은 우리에게 그가 설정하신 결혼의 순결성과 고귀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Edward J.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오병세 역, 『구약총론』(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363.

²¹ Phyllis Tribble은 “아가서는 잘못나간 사랑의 이야기를 구원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Phyllis Trib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1978), 144; Raymond B. Dillard and Tremper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박철현 역, 『최신구약개론』(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399에서 재인용.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아가서가 정경의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느냐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 먼저, 아가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에 불려졌던 다섯 개의 ‘메길롯 두루마리(Megillot Scrolls)’에 포함되어 있고, 아가서는 유월절에 불려졌다.²² 그것은 전통적으로 아가서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관련된 책으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어질 때의 아키바의 말은 아가서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²³

다른 한편으로 아가서가 70경이라든지 신약의 대부분의 역본에서 지혜서로 분류되었으며, 아가서의 저자가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인 솔로몬인 것으로 보아서 아가서가 전통적으로 삶의 지혜 특히 순수하고 진지한 사랑에 대한 교훈서로도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가서가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예수님과 교회의 지순하고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것을 교훈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순수한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에 대한 가치와 존귀함을 위해서도 가르쳐지고 불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아가서 이해와 설교를 위해서도 모형론적 접근과 문자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3.5. 신학적 의의

먼저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²² 히브리 성경에서 아가서는 성문서에서 읊기 다음의 순서에 배치되었다. 그 다음으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터의 순서이다. 그런데 아가서는 유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애가는 아빕월에, 전도서는 초막절에, 에스터는 부림절에 읽혀졌다. 참고 Marvin H. Pope, *Song of Songs*, 18; Longman, *Song of Songs*, 2.

²³ 아가서에 나타난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 때문에 아가서의 정경성에 대한 논란이 종종 있어 왔는데, AD 90년 얀비아 회의 때 아가서의 정경 채택과 관련한 랍비 아키바(R. Akibah)의 말은 유명하다.

“아가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날은 온 세계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들이 기록하지만 아가서는 기록한 것들 가운데 가장 기록하기 때문이다.”

유지하고 회복하기를 교훈한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지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도와 강도는 변화무쌍하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도와 강도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아가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점하게 한다.

다음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가서만이 독특하게 보여주는 교훈은 남녀 간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과 결혼 그리고 결혼 안에서 성적 결합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제도를 만드셨고 결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고 감격스러운 사랑의 고백을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또는 남녀의 사랑은 왜곡되고 타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정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지 않고 이상화 되거나 가정의 가치가 무시되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아가서는 남녀 또는 부부의 숭고하고 순수한 사랑과 결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 성적인 연합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러나 세상은 성을 왜곡되게 이해하여 왔다. 한편으로 성을 이상처럼 떠받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아가서는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노래한다.²⁴

결국 아가서는 남녀 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성에 대한 왜곡과 타락이 심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특한 방법으로 교훈하고 있다.

²⁴ 참고 김지찬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신학지남』 74/3 (2007/가을): 154-57.

4. 아가서의 구조

아가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참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Richard J. Clifford는 아가서 구조 파악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²⁵

아가서 단위들의 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참으로 다양하다. 다섯 개에서부터 십지어 오십 개까지 나누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학자들은 단위의 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단위들을 구분하는 경계(demarcation))에 대해서 많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바대로 다음과 같이 아가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리라는 필자의 판단이다.²⁶

1. 연인 시절
 - 1) 순수한 사랑의 시작(1:2-2:7)
 - 2) 사랑의 험난한 과정(2:8-3:5)
2. 결혼
 - 3) 사랑의 성취: 황홀한 결혼(3:6-5:1)

²⁵ Richard J. Clifford,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160.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을 위해 David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9), 199을 참고하라.

²⁶ 참고. Delizsch, *Song of Songs*, 9-10;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363-64; Dianne Bergant, *The Song of Song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1), v; Gledhill, *The Message of Song of Songs*, 43-49. 아가서 구조에 대한 여러 다른 제안들 가운데 결혼식을 중심으로 아가서 전체를 교차대칭구조(A-B-C-D-C'-B'-A')로 이해한 David Dorsey의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200).

서로를 향한 사랑(1:2-2:7)
 남자가 여인을 사랑으로 초대(2:8-17)
 여인을 밤에 찾음(3:1-5)
 그들의 결혼식(3:6-5:1)
 여인이 밤에 찾음(5:2-7:11)
 여인이 남자를 사랑으로 초대(7:12-8:4)
 서로를 향한 사랑과 맺는 말(8:5-14)

3. 결혼 생활
 - 4) 사랑의 갈등과 갈망(5:2-6:9)
 - 5) 사랑의 회복(6:10-8:4)
 - 6) 성숙한 사랑(8:5-14)²⁷

5. 아가서 설교를 위한 실제적 제안²⁸

5.1. 본문 선택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구조에 동의한다면, 위 구조의 한 단위(unit)를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본문 선택은 청중에 따라서 그리고 설교자의 관점에 따라서 더 길거나 짧아질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의 제안을 따라 본문의 길이를 정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청중의 상황이나 설교의 목적을 위해 한 절이나 단위의 일부분만을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본문의 설명과 적용에 있어서 문맥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문이 왜곡되거나 본문의 의미가 미흡하게 드러나는 설교를 피할 수 있다.

²⁷ 이와 같이 아가서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아가서 안에 나타나는 문예적 특징들도 반영하였다. 첫 번째 단위(아 1:1-2:7)의 마지막 절(아 2:7)과 두 번째 단위(아 2:8-3:5)의 마지막 절(아 3:5) 그리고 다섯 번째 단위의 마지막 절(아 8:4)이 거의 같다(“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세 번째 단위(아 3:6-5:1)와 다섯 번째 단위(아 6:10-8:4)와 여섯 번째 단위(아 8:5-14)가 비슷하게 시작한다. 아가서 3:6은 “... 오는 자가 누구인가?”로 시작하고, 아가서 6:10은 “...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로 시작하고, 아가서 8:5은 “...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로 시작한다. 참고 Delizsch, *Song of Songs*, 9-10.

²⁸ 아가서 설교도 다른 장르나 본문의 설교와 일반적인 원칙은 같다(참고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2nd. edi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본고에서는 단지 아가서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고려할 부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5.2. 본문 연구(또는 본문의 설명)

먼저, 아가서의 어느 부분을 택해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논의된 아가서의 개요, 아가서의 전체 구조와 내용, 아가서의 신학적 의의 그리고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의 아가서 전체에서의 위치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아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분명치 않고, 심지어 곡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설교자가 선택한 본문의 의미를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고, 또한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시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대화와 노래에서도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아가서가 시라는 장르임을 기억하고 산문과 같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시적 표현들의 의도와 상징적인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가서에는 연인들이 서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해서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특징이나 성적인 표현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²⁹ 그러한 노래들의 의도와 화자의 심정 그리고 은유적 표현과 상징적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³⁰

넷째로, 모든 단어나 표현에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풍유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²⁹ 예를 들어, Joseph Dillow는 아가서는 성과 사랑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알레고리나 은유나 상징을 배제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성과 사랑과 결혼의 차원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olomon on Sex*, 김선형·김응교 역, 『부부도 잘 모르는 부부의 성』(서울: 홍성사, 1998). 비슷한 관점의 책으로, 최희열, 『하나 되는 기쁨』(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5)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가서가 은유와 상징을 포함한 ‘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³⁰ 이에 대한 구체적 예를 위해 김지찬,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131-53를 참고하라.

또한 모형론의 지나친 적용으로 인해 모형론화(Typologizing)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³¹ 예를 들어, 아가서 5장에서 솔로몬을 찾는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묘사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신체적 묘사를 주님의 특징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해 또는 모형론화라고 할 수 있다. 조신권은 솔람미 여인의 솔로몬의 신체적 묘사에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였다.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머리는 정금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금은 솔로몬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불변성을 의미한다. …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한 것이다. … “뺨이 향기롭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이 넘치는 분이시면서도 은혜로우시고 평화로우신 분임을 보여준다. …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고결함과 출중하심을 형상화해준다.³²

하지만 해석자의 이러한 의미부여는 다분히 주관적이며, 명확한 성경적 근거나 설득력 있는 해석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설교자가 피해야 할 일종의 ‘풍유적 해석’이요 ‘모형론화’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의 만남과 결혼과 성숙된 사랑의 과정을 설명할 때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을 활용해야 한다. 특별히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한 ‘역사적 이매지네이션’ 문맥을 고려한 ‘문맥적 이매지네이션’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통하는 ‘상식적 이매지네이션’이 필요하다.³³

31 풍유적 해석과 모형론화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97-8.

32 조신권, 『하나님과 사랑이야기』 (서울: 아가페 문화사, 2001), 101-8.

33 이매지네이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김창훈, “설교에 있어서 이매지네이션의 활용”, 『신학지남』 77/2 (2010/여름): 81-106;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Wheaton: Victor Books, 1994); Paul S. Wilson, *Imagination of the Heart: New Understandings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을 참조하다.

5.3. 아가서의 설교의 전개와 적용

아가서를 설교할 때에 자연스러운 설교학적 전개는 먼저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연인 또는 부부 간의 사랑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한 단계 상승시켜서 하나님과 교회(성도)의 사랑으로 발전시켜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항상 연인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동시에 설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교의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목적에 따라 그 가운데 하나만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 아가서의 연속 강해 설교

필자는 아가서를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아가서 전체가 연인 또는 부부 간의 사랑의 진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꼭 필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단위를 연속적으로 설교할 때는 아가서에 드러나 있는 스토리의 진전이 설교의 주제와 목적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가서의 모든 본문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교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아가서에서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바르고 온전하게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각 단위의 설교의 주제와 적용점

위에서 필자는 아가서는 플롯이 있고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아가서 설교는 각 단위의 설교에서 그러한 내용의 진전이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

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함께 고려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제 아가서를 부분적으로 설교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연속적으로 설교하든지 아가서의 발전적 구조가 설교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인(또는 부부)의 관점과 신앙생활의 관점이 연관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³⁴

6.1. 아가서 1:2-2:7

본문의 내용: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이이다. 하지만 서로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서로를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설교의 주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순수한 사랑
적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6.1.1. 연인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때(남녀, 부부, 부모-자녀, 이웃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며, 또한 사랑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리고 순수한 사랑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자.

6.1.2. 신앙의 관점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결코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³⁴ 물론 아래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된 제안이지만, 아가서 설교를 원하는 설교자들에게 아가서 설교의 숲을 보게 하는 데 유익이 되었으면 한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향기 나고 윤기가 흐르게 한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6.2. 아가서 2:8-3:5

본문의 내용: 서로에 대한 뜨거운 연정과 애타는 그리움을 토로하였던 두 연인이 잠시 떨어졌다가 재회한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있다. 본문에서 솔람미 여인은 꿈속에서조차 신랑 될 솔로몬을 찾아 헤맬 정도로 그에 대해서 간절하고도 정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노래한다. 비록 꿈이지만 연인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솔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성중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의 행방을 묻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열렬히 솔로몬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

설교의 주제: 사랑의 결실을 위해 필요한 것-인내와 열정
적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6.2.1. 연인의 관점에서

요즈음은 인스턴트의 사랑이 유행하고 있다. 남녀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녀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 쉽지 않다. 그런데 본문은 남녀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내(기다림)와 열정(적극성)이다.

6.2.2.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열정이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에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뿐 아니라,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지난 후에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

6.3. 아가서 3:6-5:1

본문의 내용: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던 두 연인이 온 세상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아름답고 장엄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찬사가 이어지고, 신부가 화답한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초야를 맞는다.

설교의 주제: 결혼의 존귀함과 황홀한 행복
적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6.3.1. 연인(부부)의 관점에서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결혼은 우리들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고귀한 선물이다.

6.3.2. 신앙의 관점에서

결혼은 주님과 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이다. 하지만 결혼하면 더 이상 다른 이성과의 깊은 교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정의한다. 주님과 결혼 한 후에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이고 피상적

인 앎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깊이 있는 앎이다. 결혼을 통해 성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적인 앎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6.4. 아가서 5:2-6:9

본문의 내용: 본문은 결혼 초기에 경험한 사랑의 갈등에 대해 언급한다. 솔라미 여인은 결혼 이후 아마 순간적인 나태와 무관심으로 처음의 열정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과거 신랑과의 애뜻한 사랑을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사랑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설교의 주제: 사랑의 침체기

적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6.4.1. 부부의 관점에서

사랑의 침체기(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침체기에 겪는 아픔은 크다. 사랑의 침체기가 오면 이전에 경험했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 침체기가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본문은 순간적인 나태와 무관심이 그 원인임을 교훈한다. 물론 연애 때의 열정적인 사랑이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사랑의 침체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사랑의 격심한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

6.4.2. 신앙의 관점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침체기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삶의 힘들과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된다.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신앙의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6.5. 아가서 6:10-8:4

본문의 내용: 일시적으로 침체를 경험했던 두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7장에서는 너그러운 용서로 위기를 맞이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랑을 이룬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이어서 예루살렘 여인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사랑을 회복한 신랑 신부의 기쁨의 노래가 이어진다.

주제: 회복된 사랑

적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6.5.1. 부부의 관점에서

본문에서 사랑을 회복한 부부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 질수록 부부는 자기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결혼 후 갈등을 겪지 않고 온전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도움을 원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임을 기억해야 한다.

6.5.2.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믿음의 침체를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다.

6.6. 아가서 8:5-14

본문의 내용: 사랑을 회복한 부부가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더욱 성숙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신부는 사랑의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노래하면서 신랑에게 헌신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을 노래함으로 아가서는 끝을 맺는다.

설교의 주제: 성숙한 사랑

적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6.6.1. 부부의 관점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숙한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랑의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주위와 가족들과 이웃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된다. 성숙한 사랑은 서로에게 헌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혜와 행복의 샘이 되게 한다.

6.6.2. 신앙의 관점에서

성숙한 성도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당연한 삶이다.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만날 때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7. 나가는 말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가서의 이해와 설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물론 아가서를 온전하게 설교하는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신학적, 설교학적 과제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아가서 설교를 위한 하나의 제안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필자는 아가서 장르와 관련하여 ‘즐거리가 있는 시로 표현된 진정한 사랑을 교훈하는 지혜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아가서 해석의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의미를 부여하는 풍유적 접근은 지양해야 하지만, 모형론과 문자적 접근은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가서 설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발전적 구조가 설교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인(또는 부부)의 관점과 신앙생활의 관점이 발전적으로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본고가 아가서를 자주 그리고 바르게 설교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문헌

- Archer, Gleason L.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김정우 역. 『구약총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 Assis, Elie. *Flashes of Fire: A Literary Analysis of the Song of Songs*. New York: T & T Clark, 2009.
- Bergant, Dianne. *The Song of Song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1.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김갑중 역. 『구약정경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Clifford, Richard J.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Delitzsch, Franz.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lomon*. Tr. M. G. Easton. Grand Rapids: Eerdmans, 1975.
- Dillard, Raymond B. & Tremper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박철현 역. 『최신구약개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Dillow, Joseph. *Solomon on Sex*. 김선형 · 김응교 역. 『부부도 잘 모르는 부부의 성』. 서울: 홍성사, 1998.
- Dorsey, D.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9.
- Falk, Maria. *Love Lyrics in the Bible*. Sheffield: Almond, 1982.
- Fee, Gordon D. & Stuart, Douglas.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오광만 역.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3.
- Garrett, D. A.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Nashville: Broadman, 1993.
- Gledhill, Tom. *The Message of Song of Songs*. Downers Grove: IVP, 1994.

- Goulder, Michael D. *The Song of Fourteen Songs*. Sheffield: JSOT, 1986.
-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 Hill, Andrew E. & John H. Walton. *The Survey of the Old Testament*. 유선명 · 정종성 공역. 『구약개론』. 서울: 은성, 1993.
- House, Paul R.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8.
- Longman, III, Tremper. *Song of Songs*. Grand Rapids: Eerdmans, 2001.
- Murphy, Roland E. *The Song of Song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Canticles or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1990.
- Pope, Marvin H. *Song of Songs*. Garden City: Doubleday, 1977.
- Provan, Iain W.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Ecclesiastes and Song of Songs*.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2nd ed. Grand Rapids: Baker, 2001.
- Schökel, Luis Alonso. *El Cantar des Los Cantares: La dignidad del amor*. 방효익 역. 『사랑의 노래: 아가서 해설』. 서울: 바오로딸, 1998.
- Wiersbe, Warren W.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Wheaton: Victor Books, 1994.
- Wilson, Paul S. *Imagination of the Heart: New Understandings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 김지찬.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신학지남』 74/3 (2007/가을): 121-62.
- 김창훈. “설교에 있어서 이매지네이션의 활용”. 『신학지남』 77/2 (2010/여름): 81-106.
- 조신권. 『하나님과 사랑이야기』. 서울: 아가페 문화사, 2001.
- 최희열. 『하나 되는 기쁨』.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5.
- 현창학. “아가서 해석”. 『신학정론』 26/2 (2008): 83-124.

Abstract

Preaching from the Song of Songs

Kim, Chang-Hoon

It is not easy to preach the Song of songs. Due to the diverse suggestions for its understanding and preaching, preachers are so confused. In this paper, I suggest a way how to preach the song of songs. For this, I study how to understand the Song of songs. I understand it as ‘the wisdom literature instructing what the true love is, expressed in plotted poem.’ I also suggest that it should be interpreted by both typology and literary approach, not by allegory. Accordingly, the preachers should preach it in terms of both humanly love (love between man and woman) and the life in faith (love between God and his people).

Key-Words : Preaching of the Song of Songs, Subject of the Song of Songs, Genre of the Song of Songs, Interpretation of the Song of Songs, Structure of the Song of Songs